

# 베르린 자유대학 연수를 다녀와서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소아치과학교실

교 수 이 종 갑

Berlin자유대학은 원래 서 베르린의 남부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 대학은 그역사가 오래된 대학이지만 새로 신축한 건물 내부에 많은 연구기자재를 보유하고 있고 필자가 연수차 갔던 곳은 같은 대학이지만 서베르린의 북쪽에 일반 의과대학 병원과 같은 영내에 약 6년전에 신축된 새 건물에 크지는 않지만 아담하고 알찬 대학이다.

본 필자가 이곳 베르린에 도착한 것은 지난 6월 3일 서

울을 출발한지 약 20시간만에 이른 아침 프랑크푸르트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Berlin에 도착한것은 아침 9시 30분경, 비행기에서 내려다 보이는 베르린 시내는 한마디로 나무숲에 가린 빌딩의 숲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베르린 시내는 좁은 제한된 지역에 도시를 이루기 위하여 일반 주택보다는 대개가 5층짜리 아파트로 채워져 있다. 시내 한복판에도, 중심가에서 떨어진곳에도 거의 모두가 아파트와 상가일부가 혼합된 건물로 꼭 채워져 있었다.

대체로 시가지는 잘 정돈된 인상을 주었으며 거리에는 독일제품의 다양한 차종의 승용차들이 골목마다 줄지어 세워져 있지만 중심가를 제외하고는 보행객은 그리많이 눈에 띄이지 않았으며 모든 아파트 출입문은 굳게 닫혀있었다.

필자가 머문곳은 서베르린의 중심가에서 약 3Km 서쪽으로 위치한 독일인 개인아파트의 방을 하나 얻어서 쓰는 한국의 하숙에 속하는 펜시온(Pension)이다. 독일에서는 일



Berlin 장벽 앞에서(1990년 6월 4일 철거직전)

“...과별 연구열의는 활발한 것으로 느껴졌다. 이곳 대학 복도에는 많은 연구논문을 Panel을 만들어 벽에 게시하여 놓고 있는데 보존과 교수의 Composite에 관한 연구가 눈에 많이 띄었고 그 외에도 분야별 연구실적이 많은 것을 알수 있었다. 전술한 남쪽에 있는 Berlin치과대학에는 많은 기초 연구 장비를 보유 하고 있었으며...”

반 개인이 단기 방문객을 위하여 대여하여주는 경우가 많이있는데 보통 1일 40마르크(한화 약 17,000원)를 주면 아침을 제공하여주고 방에는 침구와 간단한 가구등이 준비되어있다.

필자가 방문한 자유대학은 북쪽에 신축한 대학분교에 속한다.

독일은 사회주의 국가이므로 대부분의 대학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립대학에 속한다. 따라서 모든 예산운영과 관리가 국가 통제하에 놓여있고 교수는 물론 모든 직원이 국가 공무원에 속한다.

Berlin치과대학은 학기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은 남, 북의 양 Berlin대학이 학기당 30명의 학생을 뽑고 있으며 총 10학기중 5학기는 Pre-clinical Semester로 주로 기초 학문을 강의와 실습을 하고 있으며 후반 5학기는 임상학과를 강의하고 또한 진료실에서 임상실습을 하고 있었다.

그중 2학기 동안은 Biology, Anatomy, Dental material, Histology등에 대한 강의와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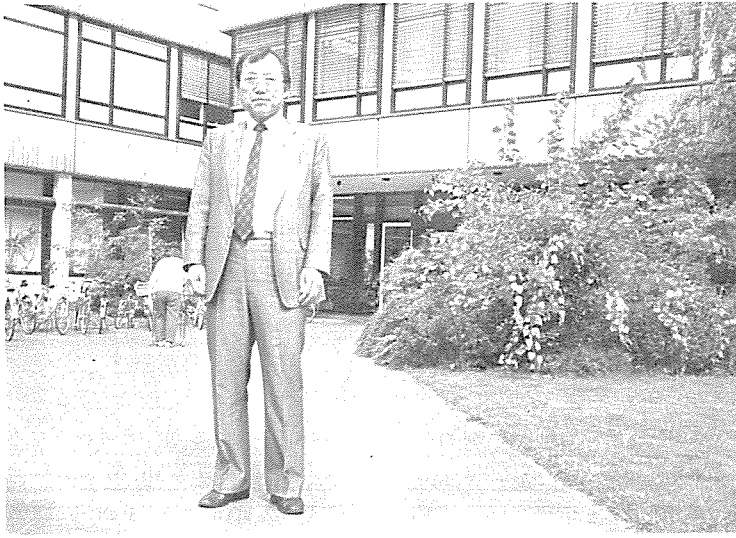
습이며 3,4학기에는 생리학, 생화학 Macroscopic Anatomy 등이 주로 강의가 되고 5학기에는 Phantom을 이용한 여러 가지 실습과 재료학 실습등이 집중적으로 시행된다. 이상과 같이 전반 5학기동안은 기초 학에대한 강의와 실습이 진행되고 후반기인 6학기 즉 임상 1학기에는 일반내과학, TMJ, 치주학, 방사선학, 피부학, 임상병리, 일반외과학등이 강의 및 실습과 임상 2학기에는 보존학, 내과학, 특별 TMJ의 과학, 예방치과학 이외에 임상전단계 및 임상실습에 많은 시간을 소모하며 임상 3학기에는 대부분이 임상강의와 임상 실습을 하게 된다. 본 필자가 머물고 있던 북쪽분교에는 기초 실습을 위한 장비나 시설이 충분치 못하여 주로 남쪽에있는 본대학에서 일반 실습을 담당하고 임상진료시기인 6학기 부터는 북쪽 베르린 대학 건물에서 강의와 실습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이 학부교육내용은 큰 차이가 없으나 학기제이기때문에 매학기말 사정을

하여 승급여부를 가리어 성적 부진시에는 1학기 연장되는것으로 오히려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필자가 Berlin치과대학에 머무는 기간이 6주정도이어서 각 과별 연구동향은 잘 알수 없었으나 과별 연구열의는 활발한 것으로 느껴졌다. 이곳 대학 복도에는 많은 연구논문을 Panel을 만들어 벽에 게시하여 놓고 있는데 보존과 교수의 Composite에 관한 연구가 눈에 많이 띄었고 그 외에도 분야별 연구실적이 많은 것을 알수 있었다. 전술한남쪽에 있는 Berlin치과대학에는 많은 기초 연구 장비를 보유 하고 있었으며 또한 독일 국내에서 생산되는 여러 기자재의 구입이 용이하고 또한 새로운 재료의 개발시에 제조사로부터 많은 연구비를 투입하여 임상연구를 하고 있는 것 등이 이 나라의 여러 연구 활동을 활성화 시키는 동기가 되리라 생각되었다.

한편 임상에서는 진료내용을 평가하여 볼때 필자는 단편적으로 느껴지기로는 이론



Berlin 자유대학교 치과대학 북 분교앞에서

**Berlin치과대학은**  
 학기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은 남, 북의 양  
 Berlin대학이 학기당  
 30명의 학생을 뽑고 있으며  
 총 10학기중 5학기는  
 Preclinical Semester로 주로  
 기초학문을 강의와 실습을  
 하고 있으며 후반 5학기는  
 임상학과를 강의하고 또한  
 진료실에서 임상실습을  
 하고 있었다.

적으로나 기술면에서 우리나라에 비하여 뒤떨어 진다고 느꼈다. 독일은 국가보험이 되어 있어서 인지 대학병원에 환자의 숫자가 많지 않았으며 치료내용도 특수하고 복잡한 진료는 피하는 듯한 느낌이었으나 대학병원은 국가공무원 격이므로 많은 환자를 취급치 않고 있으며 그런 반면에 일반 환자들의 불평은 치과에 예약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현지에서 한국 교포들의 말에 의하면 한국교포들은 독일치과에게 진료받는 경우는 응급치료만 받고 기회가 있으면 한국에 방문시 한국에서 진료받기를 원하고 있었다.

본 필자는 이곳 Berlin대학에서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독일의 여러 풍물을 익힐 수 있었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신것으로 감사하고 있으나 더욱 잊을

수 없었던것은 내가 머무는동안 동서독이 통합되는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미 세상에 잘 알려진, 동서 베르린중앙에 갈라놓았던 장벽은 29년이란 긴 세월동안 많은 애환을 남기고 이세상에서 사라지게 된 것이다. 필자가 이곳 베르린에 도착한 2일 후인 6월 5일 미국에서온 사람과 독일치과의사의 안내로 동 베르린에 들어갈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때에도 이미 동서베르린을 잇는 Brandenberge Tor(개선문)주위의 장벽은 없어지고 일부 관광객들은 자유로이 동베르린을 출입하고 있을때였다. 장벽의 일부는 없어졌지만 주위에는 멀리 장벽이 보이고 장벽이 헐리워진 자리에는 임시 철책이 통행을 막고 있었으며 이 장벽은 원래 2중으로 쳐져 있었고 중간지역에는 지뢰가 매설되어 있었다하나 이때는 이미 이 지뢰등도 다 제거되어 있었고 철망넘어 과거 이지역을 감시하던 망루가 넘어진채 덩굴고 있는것이 눈에 보일 뿐이었다. 우리일행은 개선문에서 조금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는 국경검문소를 통과하여 동 베르린으로 들어가야 했다. 이곳을 체크포인 찰리(Check point Charlie)라고 명명되어 있었다. 처음 이곳에 도착하여 여권을 제시할 때까지도 나는 동독이라는 공산국가에 들어가도 되는가? 또 들어가면 어떤 제제를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된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당도하였으나 아무런 제지없이 단돈 5마르크를 받고 영수증 같은 입국허가증을 떼어주는 것이 아닌가. 너무나도 간편하고 여유 있는 이들의 업무 처리에 한참을 멍멍한채 차에 앉아있을 뿐이었다.

과거 독일인들도 이곳을 통과하고자 29년이란 세월동안 많은 희생자를 내었었으나 이제는 역사의 발자취로 남겠구나 하고 생각하니 한국인로서 한국의 현실을 생각치 않을 수 없었다.

이로부터 꼭 1개월 후인 7월 5일 필자는 2번째 동 베르린을 방문하였다. 이때는 이미 양독간에 통일협정을 맺고 동서독간에 설치된 장벽과 철책을 제거하기로 한후이어서

Check Point Charlie는 흔적이 없어지고 검문소가 설치되어 있던 곳에 도로포장을 하기 위해 공사가 한창이었다. 검문소 바로 옆에 부분적으로 남겨놓은 장벽은 관광객의 좋은 사진배경이 되었고 약삭빠른 사람들이 장벽을 헐어낸 조각을 팔기도 하고 또한 해머와 끌을 빌려주고 돈을 받기도 하고 있었다. 풍문에 들었지만 이 장벽의 조각을 장식화하여 세계적으로 수출하여 많은 외화 획득이 있었다는 것이다.

본 필자는 이곳 베르린에 머물면서 역사적인 시기에 역사적인 사실을 직접목격하고 한국인의 입장으로 꿈에도 그리던 조국의 통일이라는 역사 앞에서 독일 국민들 자신은 흥분하거나 특히 즐거워 하거

나 자랑스러워 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지 못하였다 물론 어느 국민이고 국가가 통일되는데 기쁨과 기대가 없을 진데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고 있고 다만 앞날을 생각하며 자기 중심적으로 기뻐하기도 하고 무관심 하기도 하는 것 같았다. 오히려 세계축구대회에 우승한 저녁에 거의 모든 사람이 거리에 뛰어나와 술을 마시고 노래하며 온국민이 축하하는 광경에 비하면 너무나 냉정한 반응인 것 같아 의아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세계 2차대전의 산물인 분단국들이 통일이 되고 동, 서가 화합하는 시기에 이제 우리 조국도 하나의 국가, 하나의 이념을 가지고 세계에 발돋움 할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다.

“비록 하찮다해도  
그 주인에게는  
그것이 소중한다는 사실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孫永錫 齒科技工所

주소 : 서울 중구 중림동 116번지

전화 : 363-2383 · 2384 · 2385, FAX : 392-8976